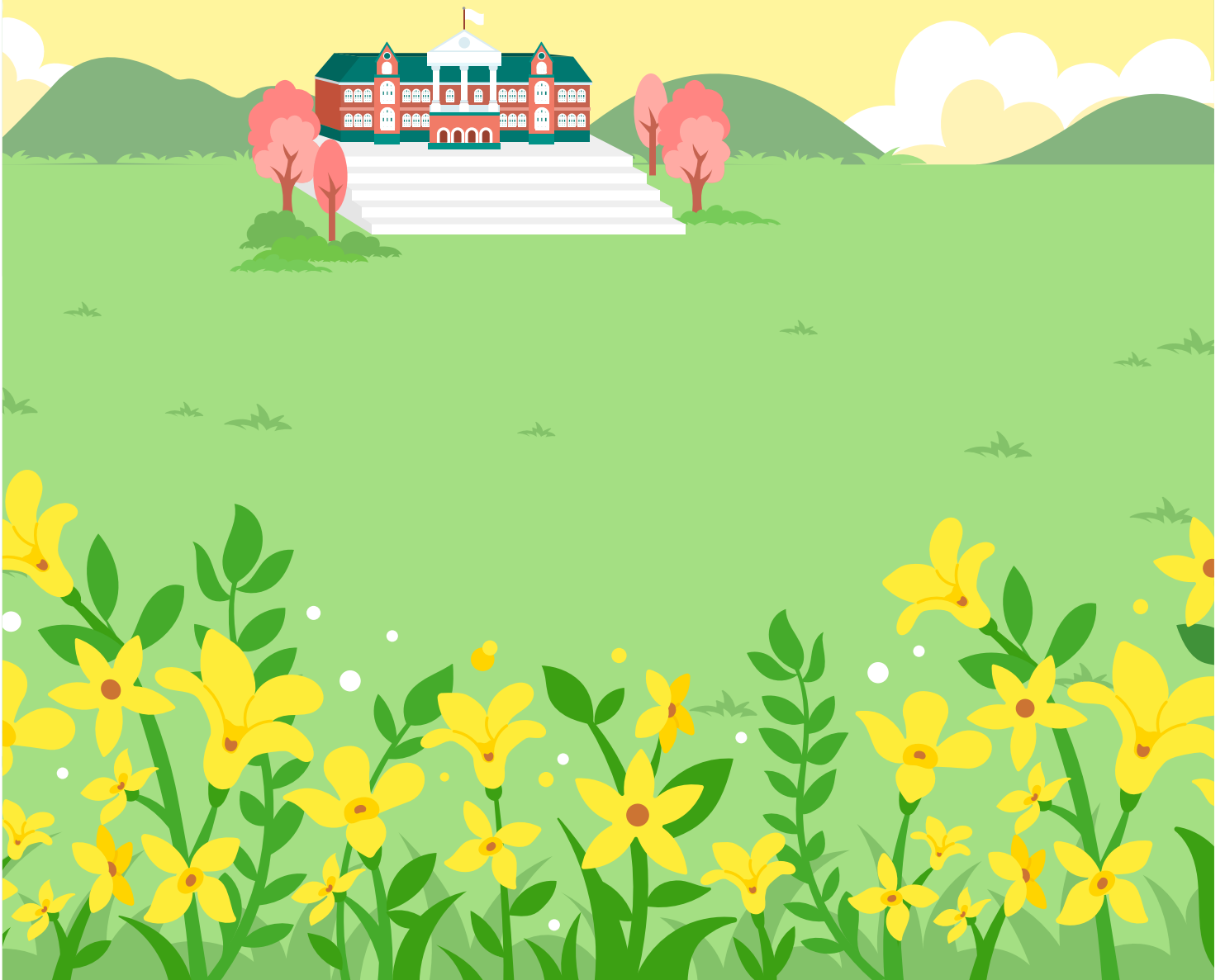




# 참사람 36.5°C

Vol. 50 | 2025년 3월 | Monthly | 발행처 교보교육재단



# CONTENTS 목차

---

## 발행일

2025년 3월 4일 화요일  
Monthly

## 발행처

교보교육재단  
Tel. 02-925-8925

## 교보교육재단 공식 홈페이지

kbedu.or.kr

## 참사람 36.5°C 온라인

chamsaram.org



## Cover Story

3월, 봄과 함께 설레는 신학기가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는 모두에게 격려를 전합니다.  
실수를 하거나, 속도가 느려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시작'과 '도전'했다는,  
바로 그 마음가짐이니까요.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모두를 응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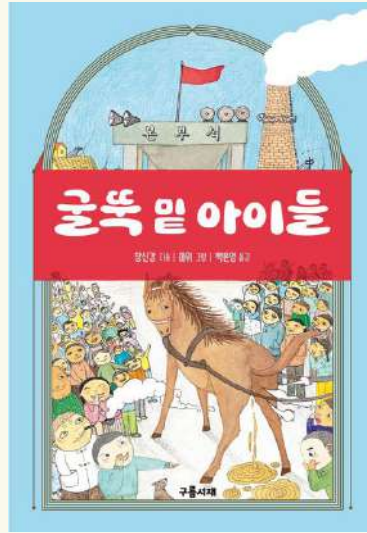
04

참사람을 말하다

**타인의 시선**

김영훈

연세대학교 심리상담센터장/  
연세대 심리학과 교수



10

책으로, 참사람으로

굴뚝 밑 아이들 독서편지  
어두운 현실도 마주할 수 있는  
힘을 주신 창신강 작가님께

대구 대건고등학교 정원준

**‘굴뚝 밑 아이들’은 어떤 책?**

글 \_현희정

마포평생학습관 아현분관장



16

재단 소식

2025 교보생명 희망다솜 장학생  
증서수여식 현장스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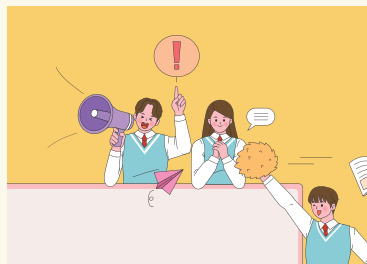


08

내가 만난 참사람

**벼랑 끝에서**

내 손을 잡아 준 사람  
글 \_ 제5회 ‘내가 만난 참사람’  
에세이 공모전 수상자 양지영



13

슬기로운 청소년 생활

친화력 만랩 청소년 10인이 전하는,  
**새학기 친구 만들기**  
꿀팁 대공개



19

재단 소식

**교보생명 희망다솜 장학생이**  
띄우는 편지

교보생명 희망다솜 장학생 최은서 드림



## 타인의 시선

요즘 혼밥과 혼술이 유행하고 있다. 듣자 하니, 혼밥에도 레벨이 있다고 한다. 패스트푸드점에서 혼자 햄버거를 먹는 것이 가장 낮은 레벨이고, 고깃집에서 혼자 고기를 구워 먹는 것이 가장 높은 레벨이라고 한다. 혼밥과 혼술이 유행한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혼밥과 혼술이 생각보다 어렵다는 것을 방증한다. 요즘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최첨단 대학생들에게도 혼밥은 쉬운 일이 아니다. 나름 미묘한 긴장감을 안겨준다. 그래서, 혼밥의 난관을 헤쳐 나가기 위한 다양한 전략들이 준비되어있다.

점심시간 전후로 수업을 몰아넣고, 바쁜 척하며 쉬는 시간에 간단하게 김밥이나 빵을 먹을 수 있다. 아예 점심시간을 피해 학교에 다니기도 하고, (밥을 이미 먹은 친구들이) “밥 먹었어?”라고 인사를 하면 이미 먹었다고 하거나, 속이 안 좋다고 핑계를 댈다. 물론 당당하게 혼자 식당에서 먹는 학생도 많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들

모두가 타인의 시선을 전혀 신경 안 쓴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혹시나 마주칠 친구들과 지인들의 눈을 피하며 밥과 핸드폰에 집중할지도 모른다. 혼밥이 어려운 것은 우리에게 익숙한 일이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참으로 이상한 일이다.

무엇이 무서워서 혼자 밥도 못 먹는단 말인가? 이 지구상에는 점심을 혼자 먹는 사람이 훨씬 많다. 사실 대부분 혼자 먹는다. 어찌 보면 혼자 점심을 먹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어찌 된 영문인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여간 신경 쓰이는 일이 아니다. 대학생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나라 대부분 사람의 이야기이다. 이런 현상은 남녀노소 모두에게 나타난다. 아는 사람이 아예 없는 곳이라면 혼밥이 조금 덜 부담스러울지 모르지만, 아는 사람이 더러 있는 곳이라면 장렬하게 밥을 굶는 쪽을 택하는 것이 나올지도 모른다. 사실 지금 나는 혼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김영훈 연세대학교 심리상담센터장/연세대 심리학과 교수

미국 사우스플로리다대학교에서 학사 학위를, 아이오와대학교에서 석사 학위를, 일리노이대학교에서 사회심리학 전공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박사 후에는 펜실베이니아대학교의 긍정심리센터 연구원을 지냈다. 2012년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로 부임한 뒤 2013년 '연세대학교 언더우드 특훈교수'에 선정 및 임명되었고, 2015년 아시아사회심리학회(Asian Association of Social Psychology)에서 '최고의 논문상'을 수상했다. 삼성, LG, 사법연수원, 초·중·고등학교 학부모 연수 등 각종 기업과 공공기관에서 강연했다. 2023년 발간한 저서 '노력의 배신'은 성공과 재능의 상호작용에 대해 통찰 어린 메시지를 전하며 MZ 세대들의 공감과 지지를 받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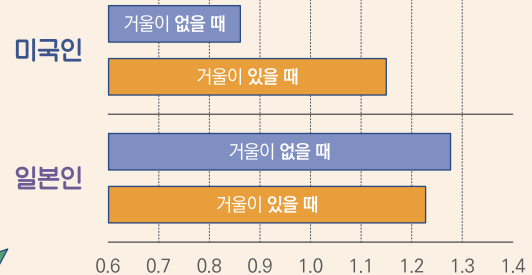
이 아니다. 무서운 타인의 시선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혼자 밥 먹다 걸리면, 다른 사람들이 내가 함께 밥을 먹을 친구가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다. 타인이 시선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우면, 혼밥이 유행이라는 사실이 뉴스거리가 되겠는가.

우리가 타인의 시선에 민감해진 것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오랜 세월을 그렇게 의식하며 살다 보니, 당연히 신경 써야 하는 것으로 여기고 있는지도 모른다. “야, 너는 다른 사람 신경도 안 쓰냐? 눈치 좀 보고 살아라!”라는 이야기를 주고받기도 한다. “나는 타인의 시선을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혼밥도 잘하고요!”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타인의 시선이라는 것이, 그렇게 만만한 상대가 아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옷 입는 것도, 양말 색깔 고르는 것도, 차를 선택하는 것도, 직장을 선택하는 것도, 대학을 정하는 것도, 결혼을 선택하는 것도, 살 집을 고르는 것도, 말 한마디 하는 것도 어느 것 하나 남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이 없다. 본인도 모르게 일상생활 전 영역에서 타인의 시선을 등에 업고 살아가고 있는 셈이다.

타인의 시선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존재인지, 그리고 타인의 시선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파괴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심리학 실험 연구 하나를 소개해 보겠다. 이 연구는 2008년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 대학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심리학과 스티브 하이네 (Steve Heine) 교수에 의해 진행됐다. 미국 대학생들과 일본 대학생들이 실험에 참여했고, 대학생들은 두 가지 질문에 답했다. 첫 번째 질문은 자신의 현재 모습을 얼마나 긍정적으로 평가하는지에 대한 것이었고, 두 번째 질문은 자신이 이상적으로 되고 싶은 사람을 얼마나 긍정적으로 평가하는지에 대한 것이었다.

첫 번째 질문은 현재 자아에 대한 평가였고, 두 번째 질문은 자기가 되고 싶은 자아에 대한 평가였다. 연구자들은 이 두 답변의 차이에 주목했다. 차이가 크게 난다는 것은 현재 모습에 불만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고, 차이가 작게 난다는 것은 현재 모습에 만족해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런데 이 연구에는 중요한 두 개의 실험적 조작이 숨어 있었는데, 첫 번째 조건에서는 대학생들이 이 두 질문에 답을 할 때 거울이 있었다. 두 번째 조건에서는 두 질문에 답을 할 때 거울이 없었다. 연구자들이 알고 싶었던 것은 거울이 있을 때와 없을 때, 과연 자기 평가가 달라지는지 여부였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어떤 조건에서 사람들이 자신의 현재 모습에 더 불만이 많은지 알고 싶었던 것이었다.

###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다고 생각하는지



위 도표에서 미국인의 거울이 있는 조건을 보면 두 답변의 차이가 큰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즉, 거울이 있을 때는, 자기가 이상적으로 되고 싶은 사람과 자기의 현재 모습 사이

에서 큰 차이를 느낀다는 것이다. 쉽게 이야기하면, 거울이 있을 때는 자신의 현재 모습을 더 부정적으로 보고, 자신에 대해서 불만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거울 앞에 있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 우리는 언제 거울 앞에 있을까? 주로 타인의 관점에서 자기의 모습을 확인해 보고 싶을 때 거울 앞에 서게 된다. 외출할 때, 사람을 만날 때, 남에게 잘 보여야 할 때 거울 앞에서 자기 모습을 확인한다. 타인의 관점을 통해서 자신을 보는 것을 <대상적 자기 인식>이라고 한다.

<거울 앞 조건>은 심리적으로 타인의 관점에서 자신을 바라보게 만드는 조건이었다.

이 <대상적 자기 인식>의 핵심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의 관점에서 스스로를 보게 된다는 점이다.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을 평가의 대상으로 본다는 의미다. ‘나’를 평가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이 연구 결과처럼 행복할 수가 없다. 자기에게 불만이 많고 우울하다.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모든 것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에만 관심이 총집중되기 때문이다. 좋은 학교에 다니는지, 예쁘는지, 잘 생겼는지, 살이 찘는지, 날씬한지, 매력적인지, 웃은 잘 입는지, 말은 잘하는지, 좋은 직장에 다니는지, 좋은 집에 사는지, 좋은 동네에 사는지 등 모든 것들을 “남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라는 관점에서 보게 된다. 내가 나를 어떻게 보고, 내가 나와 세상을 어떻게 보는지는 별로 관심이 없다.

이런 사람들은 타인의 시선에 아주 민감하다. 항상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모든 신경을 집중한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항상 불안하고 우울하고 슬프다. 본인이 ‘평가의 주체’가 아닌, ‘평가의 대상’이기 되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들은 평생 타인의 시선을 벗어나지 못한다. 타인의 시선에 맞춰 살아야하기에 매 순간 긴장하고 스트레스에 취약하다.

거울이 없는 조건은 어떻게? 이때는 타인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한 우려가 없는 조건이다. 이런 조건을 <주체적 자기 인식>이라고 한다. 타인과 상관없이 자기가 자신을 보고 싶은 대로 주체적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에게 불만이 별로 없다.

이 연구 결과의 핵심은 무엇일까? 미국인들은 일반적으로

자기 자신을 주체적으로 바라보고 지내기에 상대적으로 자신에 대한 불만이 별로 없다. 하지만 거울을 앞에 둔 상황에서, 타인의 관점으로 자신을 보게 되면 그때부터는 불만이 많아진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타인의 관점에서 자신을 본다는 것이 우리를 얼마나 우울하게 하는지를 보여주는 실험이다.

그럼, 일본인들의 결과는 어떻게? 일본인의 결과는 훨씬 더 충격적이다. 일본인들은 거울 앞에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차이가 거의 없다. 미국인들은 거울유무에 따라 불만의 수준이 달라졌는데, 일본인에게는 이런 현상이 보이지 않았다. 무슨 뜻일까? 일본인들은 거울이 없을 때도 거울이 있는 것처럼 자신을 바라본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평상시에도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라는 타인의 관점 아래 스스로를 생각하는 것이다.

이렇듯 두 나라를 나란히 놓고 보면 일본인이 평균적으로 (거울과 상관없이) 자신에 대해 불만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자신을 평가의 대상으로,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지를 염두에 두고 살기 때문이다. 일본인의 결과는 동양인의 자세를 대표한다.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런 패턴을 아주 강하게 보인다. 자기 자신을 주체적으로 보지 않을뿐더러, 주체적으로 보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타인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훨씬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시간, 아니 시간 대부분을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를 고민하며 보낸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살면 인생 자체가 몹시 피곤하고 힘들다. 평가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평가를 받는 것은 아주 힘들고 스트레스 받는 일이다. 그런데 우리는 평생 이런 관점을 가지고 살고 있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를 수 있다. 초등학교에서 공부를 시작하면서, 아니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스스로를 평가의 대상으로 여겼으며, 다른 사람과 사회 모두 우리를 그렇게 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타인의 시선에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다. 타인의 시선과 평가에 민감해지는 순간, 우리는 이미 우리 삶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우리의 가치와 행복이 남의 시선과 평가에 좌우되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해 주고 좋게 생각할 때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낄 것이다. 시대가 많이 변했지만 우리는 여전히

믿기 어려울 정도로 남의 시선에 민감하다. 좋게 생각하면 타인을 배려하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배려도, 착한 것도 아니다. 그저 남의 시선이 두렵고 무서울 뿐이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은, 남의 시선과 평가에 민감할 때의 우리는 결코 행복할 수도 없고, 자신에게 만족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흔들리는 갈대처럼 늘 휘청거릴 수밖에 없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좋게 보고 인정해 주면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하루라고 느끼지만, 싫어하고 밉게 보면 힘든 하루라고 느낄 것이다. 평가의 주체가 아니고 평가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평가의 대상자는 항상 긴장하고, 눈치를 살피고, 더 좋은 모습을 보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평가하는 타인들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운동을 하는 것도, 다이어트를 하는 것도, 공부를 하는 것도, SNS를 열심히 하는 것도, 돈을 많이 벌고 싶은 것도, 좋은 곳에 취직하고 싶은 것도... 타인의 시선을 의식한 것이라면, 이미 우리 삶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고 타인이다. 이런 자세로 모든 일을 하는 우리가 어찌 행복할 수 있겠는가. 남의 눈에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평생을 애쓰고, 애쓸 뿐이다. 공부를 못 해서 힘들고 우울할 수 있다. 학력이 좋지 않아 힘들고 우울할 수 있다. 취직이 안 돼서 힘들고 우울할 수 있다. 예쁘지 않아서 힘들고 우울할 수 있다. 가난해서 힘들고 우울할 수 있다. 남들이 우리를 좋아해주지 않아서 힘들 수 있다. 이런 조건들이 생존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힘든 것일까? 아니면 타인의 시선 때문에 힘든 것일까? 물론 생존에 관계된 부분도 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은 타인의 시선 때문에 힘들어하고 우울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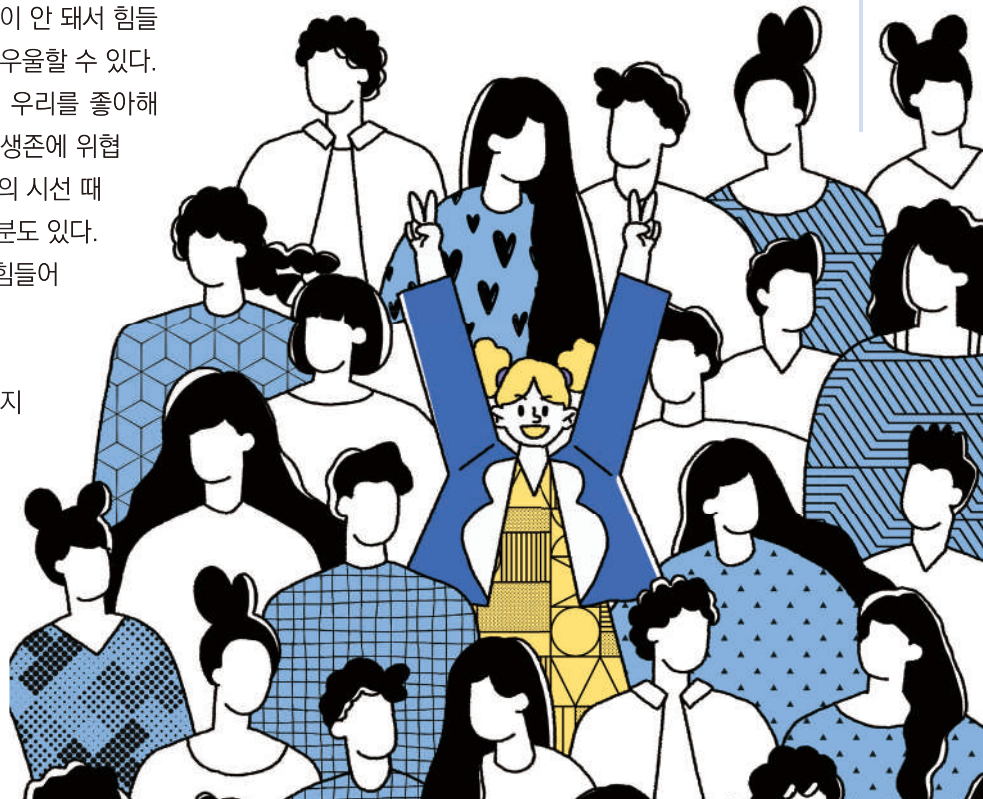
타인의 시선이 무섭고 두렵다면 또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다. 그것은 안타깝게도 “다른 사람들은 우리에게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것이다. 우리는 누구에게 제일 관심이 많을까? 다른 아닌 나 자신이다.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이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우리의 완벽한 착각이다. 그냥 심심풀이 땅콩처럼, 술


안주처럼 재미와 흥미를 위해서, 뒤에서 우리에게 관한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딱 거기까지이다. 그 이하도 아니고 그 이상도 아니다. 우리가 그토록 신경 쓰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힘이 세거나 무서운 존재가 아니다.

아무도 관심 없는데 괜스레 우리 혼자만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지 모른다. 우리가 우리에게만 관심이 있듯이 다른 사람들도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타인을 위해서 살지 말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주체적으로 살아야 한다.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면 타인의 시선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적극적으로 선택하고 또한 열심히 하면서 즐겁게 지내면 되는 것이다.

#### ※ Reference

- Heine, S. J., Takemoto, T., Moskaleiko, S., Lasaleta, J., & Henrich, J. (2008).
- Mirrors in the head: Cultural variation in objective self-awarenes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4, 879-887



‘내가 만난 참사람’  
에세이 공모전 수상작 

# 벼랑 끝에서 내 손을 잡아 준 사람

글 \_ 제5회 ‘내가 만난 참사람’ 에세이 공모전 수상자 **양지영**

내가 근무했던 학교 도서관은 학교 맨 꼭대기에 있었다. 나는 그곳에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하는 야간 대학생이었다. 우리 집은 그 당시 가세가 기울어 대학교에 입학한다는 건 엄두도 내지 못했다. 아버지의 사업 부도로 집안 곳곳엔 빨간딱지가 붙었다. 집에서는 숨 쉬는 것도 힘들었다. 빗쟁이들은 틈만 나면 들이닥쳤고, 아버지는 어디론가 사라졌다. 사람들은 무작정 집에 들어와 닥치는 대로 물건을 가져갔다. 폐허가 된 집안에서 엄마와 나는 부둥켜 울었다.

그런 상황에서 소원풀이 삼아 대입을 했는데 덜컥 합격하고 말았다. 옷 가게와 식당에서 알바로 일하면서 번 돈으로 우리 집 생계를 겨우 연명하던 즈음이었다. 삶의 무게가 묵직하게 어깨를 눌렀다. 단칸방에서 미래는 보이지 않았고, 밤만 되면 영원히 잠들고 싶다 생각했다. 그렇게 벼랑 끝으로 몰린 스물의 나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 입학식 하던 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3월의 대학 캠퍼스는 눈부셨다.





입학식이 끝나고 나는 벤치에서 몸을 구긴 채 앉아있었다. 나는 희망으로 부푼 학생들 사이에 섞일 수 없는 철저한 이방인이었다. 그들과 나는 분명 달랐다. 암담해서 눈물조차도 나지 않았다. 깔끔한 옷을 차려 입은 새내기들은 내가 봐도 멋있었다. 그러다가 벤치 위 게시판을 보게 되었다. 학교 도서관 근로 장학생 모집 광고였다. 주저할 이유가 없었다. 그냥 도서관으로 내달렸다. 당돌하게 이력서 없이 무작정 도서관장실 문을 노크했다. 막다른 골목이었다. 그때 뭐라고 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때는 근로 장학생이 되는 일이 유일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는 길이었다. 그곳에서 나는 놀랍게도 꺼져가던 희망의 불씨를 보게 되었다. 운이 좋았다. 그때부터였을 것이다. 절망 끝에서, 어쩌면 생은 살아볼 만 한 것일 수도 있겠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 그 일은 지금도 내 인생 통틀어 가장 감사한 일이었다.

도서관은 음식에 위치한 탓에 어두웠고, 겨울엔 항상 추웠다. 특히 우기의 계절이 오면 묵은 고서에서 문자들이 반란을 일으켰다. 곰팡이 냄새는 젖은 도서관을 유령처럼 돌아다녔다. 그런 음산한 분위기도 좋았다. 졸업만 할 수 있다는 희망에 하루하루가 힘든 줄 몰랐다. 또 도서관은 겨울에 유독 추웠다. 매섭게 한파가 몰아칠 때면 도서관 창문에 하얀 입김이 서렸다. 그럴 때면 전기 주전자로 옥수수차를 끓였다. 따뜻한 차에 딱딱해진 밥덩이를 말아 먹었다. 차에서 올라오는 온기는 저녁 무렵의 신호등 불빛처럼 추운 마음을 어루만져주었다. 그래도 공부할 수 있다는 사실이 감격스러웠다. 이 학교 구석 어디라도 내가 공부를 할 수 있다는 사실 하나로 목이 메었다.

도서관장님은 말씀이 없으신 분이였다. 묵묵히 눈빛으로 응원을 보내주셨다. 특별히 내게 관심을 보이지도 않았다. 무심하게 쳐다보던 그 눈빛이 참 편안하게 느껴졌다. 나를 똑같은 학생으로 대해주었다. 집안 사정도, 개인적인 일도 전혀 묻지 않는 젠틸한 분이였다. 알고 보니 근로 장학생들에게는 수호천사로 알려진 분이였다. 근로 장학생들 책값을 내 주시는 걸 여러 번 목격했다. 어떤 날은 회식 때문에 도시락이 남았다고 무심히 건네주시기도 했다. 하루 한 끼로 겨우 버티던 시절이었다. 나는 그 도시락을 근로 학생들과 나누었다. 지금 생각하니 나만 힘든 건 아니었다. 각자의 사정으로 도서관에 온 근로 학생들은 깊이 서로를 공감했고, 공부를 끝까지 마치자는 연대감으로 불타올랐다.

나를 견고하게 보호해주던 도서관, 이제 그 도서관은 내게 평생

잊을 수 없는 공간이 되어버렸다. 벼랑 끝에 매달려 있을 때 나를 구원해주던 도서관장님이 있었기 때문에 나도 성장할 수 있었다. 내 인생에서 도서관장님은 죽을 때까지 마음속에 품어야 할 사람이다. 지금 생각해보니 산같이 큰 어른이었다.

졸업하고 식품 계열 연구소에 취직했다. 인정받았고, 열심히 일했다. 그때 회사에 보조 알바로 식품 공학 학생들이 많이 왔다. 생활이 안정되자 그때 도서관장님이 내게 베풀어주셨던 기억이 되살아났다. 그분에게 받았던 여러 가지 일들을 그냥 지나칠 수는 없었다. 회사에 아르바이트 온 대학생들을 내 나름대로 돕기로 했다. 그들의 간절한 눈빛을 나도 경험해 보았기 때문이다. 인생사 새옹지마라고 하지 않던가? 행운이 곧 불행이 되기도 하고 불행이 다시 행운이 되는 것처럼 사람 인생에서 일어나는 길흉화복은 감히 예측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아무리 막다른 골목에서 오갈 데 없는 처지가 되었을지라도 스스로 무너뜨릴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끝까지 긍정적인 의미를 두고 노력하고 책임지다 보면 좋은 결과가 올 것이라고 생각 한다.

나는 올해 예순에 접어들었다. 환갑을 앞둔 나이다. 이제 내 나이는 미래의 설계보다는 추억에 젖어서 지낼 때가 많다. 성격 과거를 떠올리고, 실수한 것에 대해 자책하는 일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서 매 순간 최선을 위해 살았다. 내 삶에서도 인생의 위기는 늘 따라왔었다. 그럴 때면 시기하는 사람도 많았지만 도와주는 이도 있었다. 참사람의 덕목에는 타인과 사회를 위해 실천 또한 자리하고 있다. 도서관장님은 지금 생각해보니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 그 분은 나라의 사람의 부리가 잘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 부리가 땅속에 깊이 자리를 잡고 그것이 근간이 되어 나무로 자랄 수 있었다.

최근에 어떤 낯선 대학생들 집에 재워준 적이 있었다. 그 학생은 오랜 자전거 여행으로 지친 상태였다. 고장 난 자전거를 내 차로 실어서 함께 집으로 왔다. 학생은 내게 무척 고마워했다. 그 친구와 헤어지면서 난 그렇게 말했다. 다음에 누군가를 위해 또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고. 나는 우리 사회가 이런 긍정적인 순환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참사람을 통해 도움을 받았던 이들의 미담을 통해, 우리 사회가 서로를 보듬고 위로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만난 참사람'의 에세이 주인공들을 보며 또 한 번 그 의미가 크게 느껴졌다. 교보교육재단에 감사함을 느낀다.

## 「굴뚝 밑 아이들」 독서편지 어두운 현실도 마주할 수 있는 힘을 주신 창신강 작가님께

대구 대건고등학교 정원준

안녕하세요, 창신강 작가님. 저는 한때 감히 작가님처럼 문학인이 되는 꿈을 꾸기도 했던 고등학생입니다. 하지만 성장하면서 곧 깨닫게 되었습니다. 작가는 필력만 뛰어나다고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세상을 제대로 들여다볼 수 있는 힘과 모두의 입장이 되어 생각할 수 있는 공감 능력, 독자들의 마음에 닿아 그들을 일깨울 수 있는 진정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걸요.

제가 여러 작품들 중, 작가님의 소설을 읽어보고 싶었던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작가님의 소설은 인간사 희노애락의 감정들을 유쾌한 웃음으로 승화시키며 사회의 부조리한 면면들을 돌려차기하듯 제대로 때려주기 때문입니다. 통쾌함을 주면서도 잠자고 있는 우리의 내면을 일깨워주시거든요.

작가님의 작품인 <굴뚝 밑 아이들>이란 책을 펼치기 전에는, '굴뚝 밑 아이들'이라는 말이 산업화 사회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책을 읽으며, '굴뚝 밑 아이들'은 사회주의 체제 아래 공공 묶여있는 아이들임을 눈치 채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중국의 '문화대혁명'이라는 비극적 역사를 보여주며, 이러한 배경에서 인간이 겪는 고통과 성장, 그리고 희망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평소 중국 현대사에 관심이 많았기에, 한때 중국의 가치 있는 문화와 지식인들이 대거 제거된 문화대혁명이라는 역사가 개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많은 역사 서적들이 그 시기의 정치적, 사회적 변화를 설명하지만, 그 속에 살던 사람들의 구체적인 삶과 감정은 잘 다루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가님의 작품은 그러한 역사적 배경 속에서 살아가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그 시대를 인간적으로 조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 호기심을 끌었습니다. 특히 책을 읽는 내내 가장 인상 깊었던 대목은, 소설의 말미에서 주인공 옥수수가 꾸 꿈이 묘사된 부분이었습니다.

꿈에서 얼어붙은 땅에 묻어 놓은 '검은 책'에 새싹이 돋아났고, 흙을 파헤쳐 보니 그 안에 많은 책들이 자라나고 있었다...중략...<옥수수 마침내 진실을 말하다>. 마침내 내가 입을 열어 진실을 쓴 것이다. 진실을! (p170)



이는 옥수수의 꿈인 동시에, 그의 간절한 염원이자 같은 현실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희망하는 미래의 모습이라는 생각에, 몽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옥수수와 그의 가족, 친구들, 그리고 이웃들이 보여준 끈끈한 연대감을 보며, 무서운 통제와 억압으로도 끊어낼 수 없는 것이 바로 사람들 간의 따뜻한 정과 믿음, 그리고 사랑이라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옥수수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보다는 훨씬 나은 현실을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그동안 일상 속에서 얼마나 쉽게 좌절하고, 때로는 개인적인 안위만 우선시 했는지에 대해 스스로를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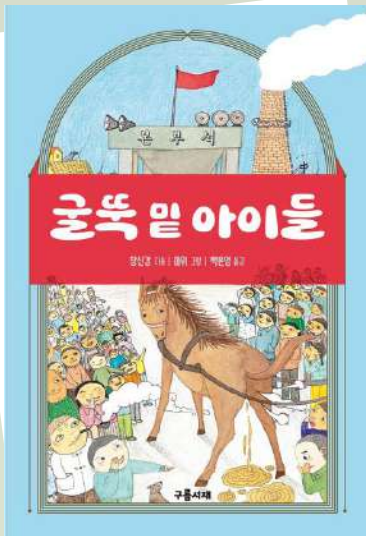
또한, 저는 이 책을 통해 시련을 다루는 새로운 시각을 배웠습니다. 시련은 단순히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성장하고 희망을 발견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작가님의 글을 통해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제가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스스로를 다독이고 다시 일어설 힘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분명 작가님께서 중국의 역사적 사실과 당시 민중들의 고단했던 삶을 전하는 것에만 의의를 두지는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모두가 깨어나 두 번 다시 무지한 이들에게 짓밟히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나아가 어떤 시련이 닥쳐도 좌절하기보다는 웃음을 잃지 않고 스스로를 지켜내라는 말을 전하는 듯 느껴졌습니다. 저에게도 앞으로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고 마주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작가님의 메시지가 <굴뚝 밑 아이들>처럼 따뜻하고 훌륭한 작품들을 통해, 저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길 바랍니다. 부디 건강하시고, 다음 작품으로 꼭 만나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팍팍한 시간에 찌들어 있는 수험생에게 간만에 가치 있고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웃나라 대한민국에서  
작가님을 존경하는 문학소년 드림

‘굴뚝 밑 아이들’은 어떤 책?

## 풍자와 유머로 어른들의 세상을 날카롭게 비판한 작가의 성장소설



1960~70년대 중국 집단농장 마을에 사는 열두 살 소년의 시선으로, 부당하고 부조리한 어른들의 세상을 풍자적으로 비판하는 소설이다.

학교 선생님이었던, 주인공의 아버지는 금서를 썼다는 이유만으로 촌고 먼 농장에서 강제노동을 해야만 했고, 자식처럼 애지중지하지만 콜레라에 걸린 돼지를 결국 땅에 묻지 못하고 몰래 가족에게 먹여 두드러기가 나게 한 리즈 엄마, 장가를 보내주겠다는 마을 단장의 속임에 확성기를 고치려 굴뚝으로 오르다 떨어져 죽었는데 갑자기 열사가 되어 버린 파배기 아재 등. 아이들의 눈에 비친 어른들, 그리고 아이들이 벌이는 일은 하나같이 괴상하다. 아이들은 어른들이 말을 해 주지 않아도 부당하고 부조리한 상황을 인식하게 된다.

문화대혁명 중국의 억압적인 사회 분위기와 가난 속에서도,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굽히지 않으며 표현하려고 노력하는 주인공을 보면서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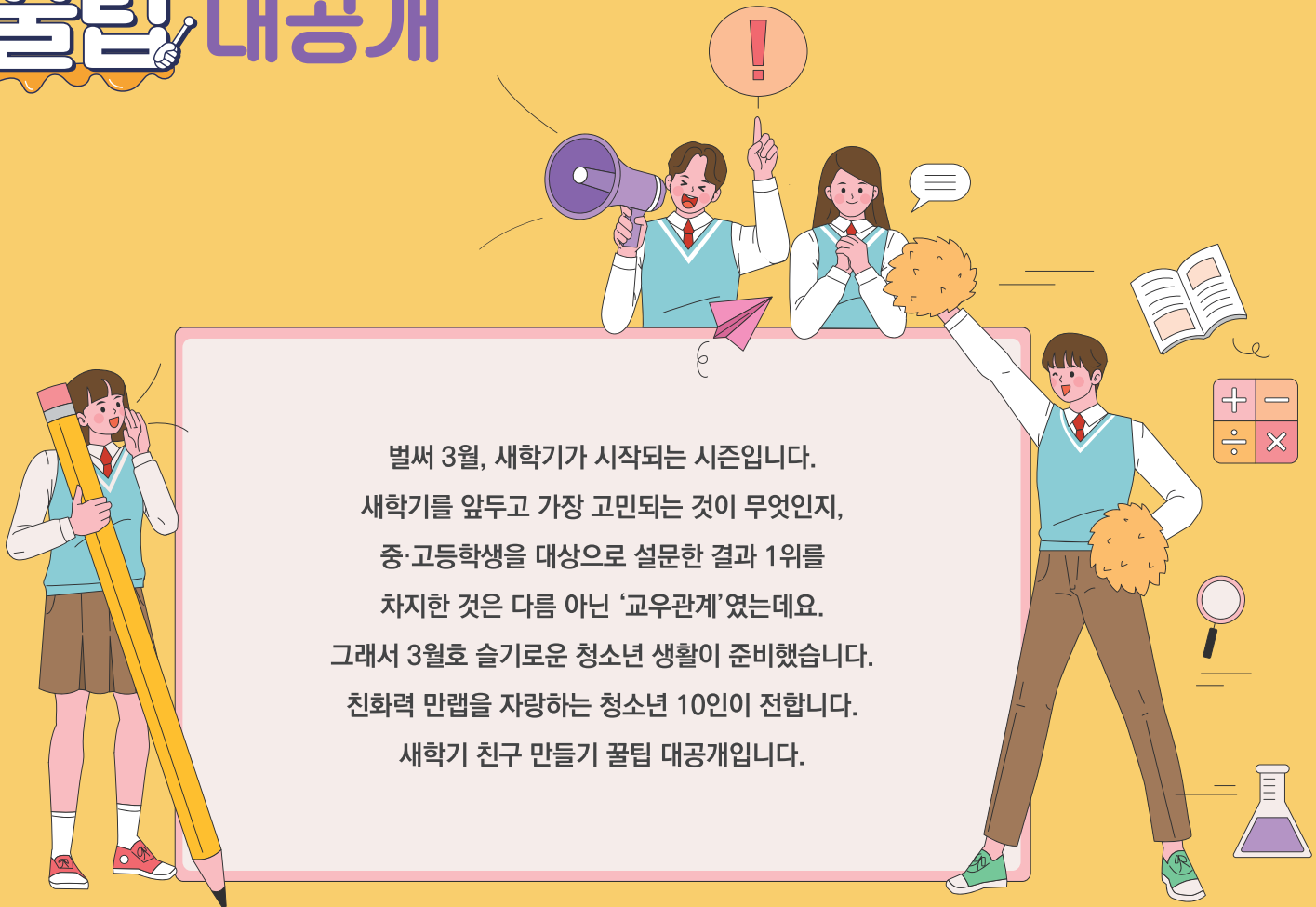
**현희정** 마포평생학습관 아현분관장

좋은 책을 함께 읽고, 쓰고, 토론하기를 좋아하는 사서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책을 많이 읽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책 읽기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책읽기를 통해서 더불어 성장하는 독서문화가 확산되고 아울러 인문학적 소양도 깊어지고 그러면서 모두가 행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친화력 만렙 청소년 10인이 전하는,

# 새학기 친구 만들기

## 꿀팁 대공개



벌써 3월, 새학기가 시작되는 시즌입니다.  
 새학기를 앞두고 가장 고민되는 것이 무엇인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1위를  
 차지한 것은 다름 아닌 ‘교우관계’였는데요.  
 그래서 3월호 슬기로운 청소년 생활이 준비했습니다.  
 친화력 만렙을 자랑하는 청소년 10인이 전합니다.  
 새학기 친구 만들기 꿀팁 대공개입니다.

간식으로 플러팅하기!!  
 학급 임원하기!!

정아인아인

새학기가 되면 간식을 싸 들고 제일 먼저 등교해서 먼저 자리를 잡고 앉아있어요. 그러면 처음 보는 애들, 오며가며 마주친 애들이 하나 둘씩 등교하는데, 그때 친해지고 싶은 친구한테 먼저 다가가 인사하고 들고 온 간식으로 플러팅하면 됩니다! 원만해서는 간식도 다 받고, 그 때 이름 물어보기도 제일 쉬워서 추천해요. 그리고 조용해 보이는 친구들하고 친해지는 법! 일단 먼저 말을 걸면서 '혹시 말 거는 거 안 불편하냐' 등의 질문도 예의상 당연하게 해줘야 해요. 조용한 타입의 친구들 중에 본인과 친한 사람 외에 말 거는 거 자체를 좋아하지 않는 친구도 꽤 봤거든요. 또 임원을 하세요! 학급 임원을 하다보면 이런 저런 일들로 반 아이들과 접촉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반 전체와 소통할 기회가 생겨 친해지기 훨씬 쉬워요.

이가은

3S :  
See, Surprise, Say

**See**, 유행하는 말이나 밈, 캐릭터, 패션, 아이템 등 친구를 잘 살펴 보면 이야기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것들이 보여요.

**Surprise**, 공통의 관심사 또는 칭찬거리를 찾았다면 "와", "나도!" 같은 감탄사를 웃는 얼굴과 함께 친구에게 전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대화가 시작이 되어요.

**Say**, 단답이나 질문이 계속 이어지지 못하는 대답은 피하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너는 무슨색 좋아해?"라는 질문이 들어왔다면 "흰색"이라고 단답형으로 대답하지 말고, "난 흰색. 너는?"하고 다시 질문하는 거죠. 서로에 대한 질문이 이어지면 친구와 이어지는 끈이 점점 선명해지는 기분이 들어요!

떡볶이공주

서로의 고백 타임을 만들고,  
작은 이벤트를 주도하세요

우선 자신이 최근에 겪은 웃긴 에피소드나 충격적인 경험을 나누는 것입니다. 친구들 간의 벽을 허물어주고 자연스럽게 친해지는 계기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추천해줬던 영화 같이 보자!"처럼, 작은 이벤트를 제안해보세요. 포인트는 친구와 서로 공유한 관심사에 기반해서 둘만의 추억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구체적인 칭찬 해주기도 저만의 팁입니다. 진부할 수 있지만 칭찬을 싫어하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이쁘다~ 멋지다~ 착하다" 보다는 "넌 노란색이 잘 어울린다. 글씨가 참 예쁘다. 목소리가 맑아서 듣기 너무 좋다."처럼 구체적으로 칭찬을해보세요!

공통점을  
발굴해보세요 :)

기도

두근두근 첫 날...과는 반대로 숨 막히는 어색함! 우리가 보통 새학기를 떠올리면 느끼는 감정이죠. 아마 많은 학생들이 이 문장에 격하게 공감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도 대문자 I형 인간으로 친구들에게 먼저 말을 거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요즘은 1년, 어쩌면 그 이상을 함께 하게 될 친구들에게 용기 내어 먼저 인사를 건네고자 합니다. 여기서 저만의 비법은 대화 속에서 친구의 장점과 공통점을 찾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말이죠. "엇! 너도 그것에 대해 아니?"하는 순간 이야기의 꽃은 시들지 않고 "너 정말 친절하구나!" 하면 친구의 함박웃음이 보답으로 다가옵니다.

제가 가장 확신하며 말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즐거운 대화와 칭찬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지만 바로 실천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이라는 문을 열고 대화 속에서 보물찾기를 하다보면 우리 곁에는 앞으로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될 친구들이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천윤오

스포츠를 통해  
상대를 알아가기!

학교에서 하는 체육활동이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데 좋은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탁구와 배드민턴, 축구와 같은 팀 스포츠를 하다보면 어색하지 않게 친해질 수 있더라고요. 같이 재밌게 놀다보면 다음 약속도 잡게 되고, 그렇게 매주 만나다 보면 급속도로 친해질 수 있습니다! 저도 체육 동아리 활동을 통해 그룹으로 함께 경기를 하거나, 남아서 연습도 하고 간식도 먹으면서 친구들을 엄청 사귀었거든요. 어떤 종목도 좋아요. 운동은 빠르게 친해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김은경

인스타로 경계심을  
허물고, 매력 발산!

하나, 친해지고 싶은 친구 앞으로 가서 인스타그램 계정을 교환한다. 둘, 서로 팔로우를 맺고, 친구가 올린 게시물을 보며 칭찬한다. 셋, 나에 대한 경계심이 어느 정도 풀린다 싶으면, 나의 뽀끼를 발산한다! 그럼 거의 다 넘어 온당하하 여러분, 마음껏 매력발산하며 망가져보세요! 친구가 바로 생깁니다!



"나 지우개 좀 빌려줄 수 있을까?"  
— 서연우

저는 사립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올라왔는데, 같은 학교에서 온 친구들이 거의 없어서 친구를 어떻게 사귀어야 할지 많이 고민했었습니다. 이때 저는 2가지 방법을 썼는데요, 하나는 바로 작은 물건을 빌리며 말을 트는 것입니다. 친구가 부담스러워하지 않도록 지우개와 같은 소소한 물건을 빌리며 '고마워'라는 말로 첫 마디를 시작하는 것. 상대도 나도 부담 없이 호의를 베풀고 고마움을 표현하면서 긍정적인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공감되는 부분을 찾아 대화를 시작해 보는 것. 취미나 취미처럼 긍정적인 공감대도 좋지만, 고민거리와 같은 힘든 점에 대한 공감대를 찾아 보는 것이 친밀감을 형성하기에 더 좋습니다. 사자성어 중 같은 병을 앓고 있는 사람끼리 통한다는 의미의 '동병상련'이 있는 것처럼 힘들거나 속상한 일을 이야기하면 보다 빠르게 마음의 문을 열고 친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산하지 말고, 더 많이 주세요^^  
— 김예은

매년 이맘때쯤이면 새롭게 맞이할 모든 것들을 상상합니다. 개학일에는 어둡고 하얗던 겨울을 지나 밝아진 봄내음을 맡으며 학교에 향하곤 하죠. 등교하는 그 짧은 순간에도 살랑거리는 꽃들이 기지개 펴는 모습을 보며, '안녕?'이라 인사하는 듯 내 뺨을 스치는 살가운 바람을 느끼며 부푼 기대를 안기도 하지만 언제나 처음은 겁나고, 두렵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학교라는 작은 사회에서 인연을 맺는 방법이 많이 웃고, 자연스러운 공감을 건네는 것이예요. 긍정은 어디서나 통하고, 자연스러운 공감은 상대방과의 유연한 대화를 이끌기 때문이죠. 또,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의 성격을 살펴보면 돼요. 아마 매력있다고 생각한 부분을 나도 실행하고 있으면 결이 비슷한 친구들과 친해질 수 있을 거예요. 무엇보다 계산적이지 않고 애정이든 칭찬이든, 내가 더 많이 주면 돼요. 누구든 자신을 소중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좋으니까요. 그럼 이만, 많은 이들이 봄만이 주는 설렘을 통해 밝은 인연을 맺길 바라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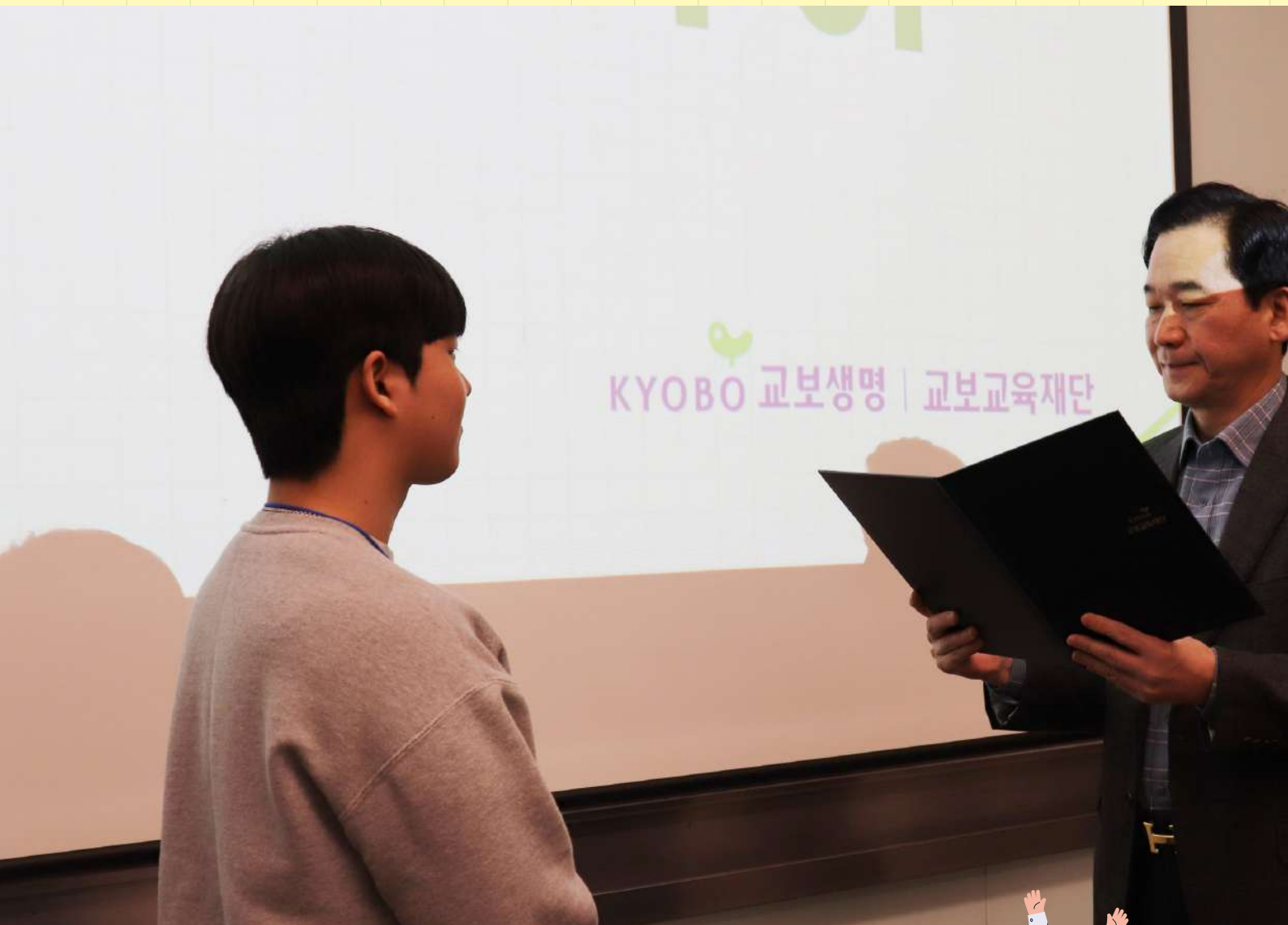
진서희 — ('이름'을 꼭 기억해주세요 :!)

사람과 친해지고 싶을 때 가장 기본적인 사항은 이름을 기억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친구를 보면서 계속 이름을 되뇌며 기억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 주변에 앉은 친구들과 우선 대화를 많이 시도합니다. 주변에 앉은 친구들과 얘기하면, 저절로 그 주변에 있는 친구들까지 친해지게 되는 것 같아요. 이름을 기억하고, 이름을 많이 불러주고, 그리고 마주쳤을 때 인사를 먼저 밝게 해보면 어떨까요?



SCAN-PICK-CONTACT의 단계별 스킬  
— 기리보이

- ① 새로운 반을 꼭 스캔한다. ② 마음 속으로 친해지고 싶은 사람을 3명 정도 픽한다. ③ 간식을 주거나 인스타그램을 물어보며 말을 건넌다! ④ 좋아하는 아이돌, TV 프로그램 등 관심사를 공유하며 친해진다! 이후부터는 반드시 한 명이라도 친구 옆자리 사수하기, 밥 먹을 때도 같이 먹고 계속 이야기 나누며 친해지기! 친구 만드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각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나만의 모습을 꾸밈없이 보인다면 나와 잘 맞는 참친구를 만날 수 있을 거예요!



## 2025 교보생명 희망다솜 장학생 증서수여식 현장스케치



교보교육재단은 교보생명과 함께 지난 2003년부터 보육원 퇴소 및 저소득층 대학생들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교보생명 희망다솜 장학생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년 새내기 대학생 20여 명을 선발해 졸업할 때까지 학자금을 지원하고,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는 별도의 성적우수장학금도 전하고 있어요. 또한 독서를 통해 참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마다 교보문고 도서지원금까지 지급한다는 사실!







지난 2월 24일, 광화문 교보생명빌딩에서 '2025년도 교보생명 희망다솜 장학생 증서수여식'이 있었습니다. 이번 증서 수여식에는 올해 새롭게 선발된 23기 신입생 20명을 포함해 약 80여 명의 장학생이 참여했어요.

이 날 수여식은 1부 증서수여식과 2부 희망다솜 장학생 네트워킹 시간으로 구성되었는데요. 이사장님은 따뜻한 환영인사와 함께 신입생과 기수별 대표 장학생들에게 장학증서를 전달해주셨습니다. 이후에는 교보생명 희망다솜 장학생의 일원으로 서 책임을 낭독하는 시간도 가졌고요.





특히 이날 수여식에는 구글 근무 후 고려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인 희망다솜 4기 졸업생이 멘토로 나서 자립 과정의 어려움과 자립 생활 노하우를 진솔하게 전하며 따뜻한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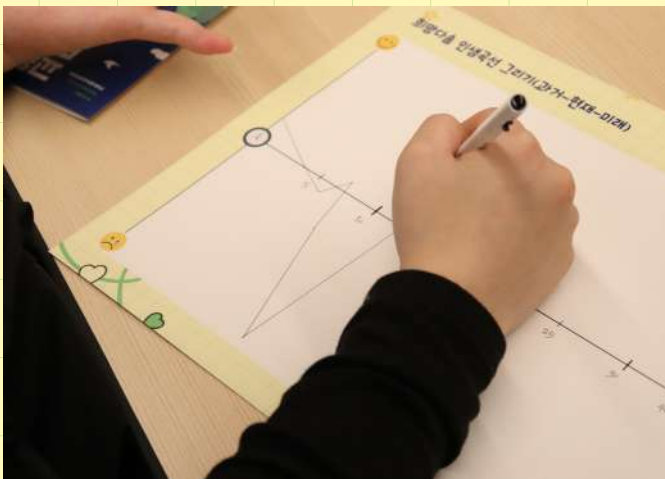
선배 장학생은 “여러분은 양육시설 출신, 기초생활 수급 등 여러배경으로 인해 과소평가 받기 쉬운 상황에 있다. 하지만 결코 주변의 편견에 휘둘리거나 무너지지 말고, 자기 스스로를 믿고 나아가야 한다.”는 당부의 메시지를 전해 후배 장학생들에게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졸업생 특강을 끝으로 공식 행사가 마무리 되었고, 서로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다음 만남을 기약하며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점심시간은, 팀별로 광화문 일대를 돌며 맛있는 식사와 함께 다양한 미션을 수행했는데요. 교보문고에서 ‘희망다솜’ 글자 찾기, 4행시 짓기, 창의적인 하트를 표현한 단체사진 찍기 등을 하며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식사 후 미션을 마치고 행사장으로 복귀하며 2부가 시작되었습니다. 2부에서는 장학생들이 자신의 삶을 고백하고 서로를 위로하는 ‘인생곡선 그리기’가 진행되었어요. 인생곡선은 가로축을 나이, 세로축을 기억이나 경험 등으로 설정하고 나의 과거-현재-미래를 반추하거나 그려보며 내적동기를 다지는 활동입니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희망다솜 친구들은, 이 날 자신의 개인사를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북한에서 탈출한 새터민 친구의 이야기, 보육원에서 여러 아픔을 겪었던 이야기 등 다양한 사연 앞에 모두가 웃기도, 울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희망다솜 장학사업을 통해 배출된 장학생은 480명으로, 이 중 380여 명은 학교를 졸업한 후 어엿한 사회인으로 성장했습니다. 교보교육재단이 지금까지 지원한 금액은 60여억 원에 이릅니다. 교보교육재단은 보호종료를 앞둔 장학생들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교보생명 희망다솜 장학생, 모두들 파이팅!



## 교보생명 희망다솜 장학생이 띄우는 편지

안녕하세요. 저는 제23기 교보생명 희망다솜장학생으로 선발된 최은서라고 합니다.

하얗게 내린 눈을 자주 볼 수 있었던 겨울이 지나고 곧 봄이 옵니다. 입춘의 소식을 들으면 저는, 설레고 두근대는 감정보다는 '사람들은 봄에 가장 많이 죽는다.'는 말이 떠오르곤 합니다. 겨울은 일사량이 부족한 계절이기에 사람들은 우울의 구렁텅이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럼에도 따뜻한 봄을 기다리며 겨울을, 그리고 우울을 견뎌내지만, 기대했던 현실과는 다를 때 아마도 절벽을 마주한 사람처럼 추락하고 마는 것 같습니다.

제게도 봄이 오고 있습니다. 그 봄에서 새싹과 같은 희망을 마주할지, 절벽과 같은 절망을 맞닥뜨릴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돌아온 장군처럼 무서운 게 없습니다. 지난 수험생활은 겨울처럼 춥고 외로웠지만 이제는 그 겨울을 즐길 수 있을 만큼 성장했습니다. 제가 견뎌낸 겨울은 절벽을 마주한대도 내려갈 밭줄이 되어 주리라 믿습니다. 그 밭줄만은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는 믿음도 함께요. 다가올 봄은 또 얼마나 시리고 낯설까, 그 봄에서 나는 또 얼마나 성장할까하는 기대감으로 설렘과 함께 봄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설렘만으로 가득 찼던 저에게 얼마 전 있었던 교보생명 희망다솜 장학생 증서수여식은 적잖은 충격이었습니다. 그 날의 마지막 프로그램이었던, 4기 졸업생 선배님의 특강에서, '삶의 의미를 찾아라'는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열다섯에 앓았던 우울증은 제게서 이미 삶의 의미를 찾아갔습니다.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저는, '미래의 내가 과거의 일 때문에 발목을 잡히는 일은 없게 하자'는 생각만으로, 잠재적 후회를 공부로 줄여나갔습니다.

하지만 '삶의 의미'라는 키워드를 들은 순간, 빼앗긴 줄조차 모르고 있었던 '내 삶의 목적'이라는 빈자리가 떠올랐습니다. 그동안의 제 자신이 수비에 힘을 다 써 자신의 실력을 내보일 여력이 없는 선수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움직이고 싶었습니다. 다가올 후회에 지레 겁을 먹고 그 후회를 방지하기 위해 현재를 사는 것이 제 삶의 목적으로 굳어지도록 내버려둘 수는 없었습니다.

다가올 봄에 이뤄낼 성장의 방향성을 고민하느라 준비가 무척 분주해질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제 삶의 목적을 찾기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입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설령 방황하게 되더라도, 그 여정 또한 경험임을 알기에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봄을 마주하는 모든 분들이 이번에는 삶의 의미를 발견하셔서 절망이 다가오더라도 그 절망을 통해 성장하는 봄이 되면 좋겠습니다. 또 가끔 큰 행복보다는 작고 잦은 행복이 여러분 곁에 맴돌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봄과 함께 희망을 전해 준 교보교육재단과 교보생명, 따스한 말씀과 유쾌한 미소로 격려해주신 최화정 이사장님, 그리고 '삶의 의미'라는 실마리를 전해주시는 희망다솜 선배님께 감사를 전하며 글을 씁니다.

- 교보생명 희망다솜 장학생 최은서 드림

# [제27회 교보교육대상 열린추천] 수상후보자를 추천해주세요

“우리 학교(마을)에 이렇게 훌륭한 선생님(단체)이 있다니!  
저 분의 활동이 우리사회에 귀감이 되면 좋겠다.”

사람을 참되게 키우고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데 기여한 분이 주변에 계신가요?

제27회 교보교육대상 수상후보자로 추천해주세요.

훌륭한 분을 추천하고, 교보문고 기프트 상품권도 받을 기회! 놓치지 마세요.

## 추천 자격은?

- 우리 교육에 관심있는 분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 \* 교사, 제자, 학부모, 교육 관련 단체 대표 및 종사자, 지역사회 교육활동가 등

## 추천하는 사람에게 주는 혜택은?

- 열린추천 기준에 맞게 추천서를 작성해주신 100분께는 교보문고 기프트카드(3만원)를 보내드립니다.

## 추천 부문은?

- 아래의 교보교육대상 4개 시상부문에 해당하는 후보자가 있다면 추천해주세요. (4개 부문 중 택 1)
- 혹시 어느 부문으로 추천할지 모호할 경우 해당부문을 모두 체크해주세요.

## 추천기간은?

- 열린추천은 2025년 3월 31일(월)까지 접수받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

| 부 문    | 내 용  |
|--------|--|
| 참사람육성  | 정직, 성실한 성품을 함양하고 끊임없는 자기성장을 추구하여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위해 실천하는 '참사람'을 키우는데 기여한 개인  |
| 창의인재육성 | 도전과 협력정신을 바탕으로 새롭게 사고하고 행동하며,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창의성을 함양하여 인문, 예술, 과학 분야 등에서 사회 발전과 혁신에 이바지할 수 있는 '창의인재'를 기르는데 기여한 개인                         |
| 평생교육   | '일하면서 배우고 배우면서 일한다'는 평생학습 정신을 기초로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성장과 자아실현을 돕고, 평생학습사회 구현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   |
| 미래혁신   | 디지털 대전환 등 교육환경의 변화에 대응해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영역 및 교육도구, 선도적인 교수법과 교육방법론, 미래지향적인 콘텐츠 등 미래교육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고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개인 또는 단체(또는 기관, 기업(스타트업 포함)) |